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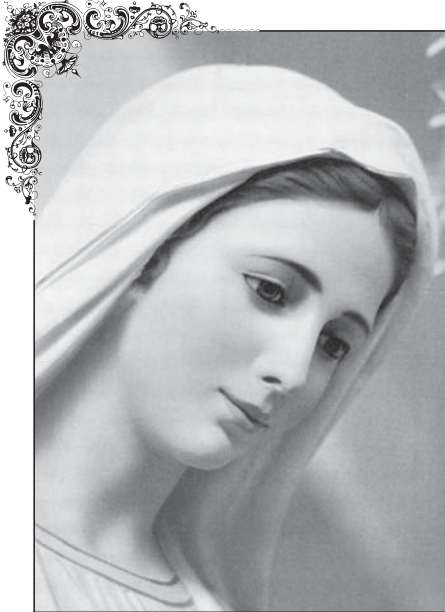
MEDUGORJE

# 평화의 모후

2013. 6,7 / 제 66호

성모님 발현 32주년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하며 티 없이 깨끗한 나의 성심에 더 가까이 오라고 너희를 부른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평화와 사랑을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단다.

어린 자녀들이아, 기도에 너희 자신을 열어라.

나의 사랑에 너희 자신을 열어라. 나는 너희의 어머니로서 너희 홀로 방황하며 죄악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단다.

어린 자녀들이아, 너희는 나의 자녀 곧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부름 받았기에 나는 너희 모두를 나의 아드님께 봉헌할 수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2013년 6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표지 설명 : 1981년 6월 25일 메주고리에 풋브르도 발현 언덕에 발현하신 성모님과 6명의 목격증인들.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거룩한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다.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4. 성모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

8.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교황 베네딕토 16세 -

12. 구원의 닻

- 스테파노 곱비 신부 -

13. 기도와 평화의 학교 메주고리에

- 요조 죠브코 신부 -

16. 아기 예수님께 드린 9일 기도

- 마리노 레스트레포 -

20. 발현 목격 증인들

비스카 / 미리아나 / 이반 / 마리아

25. 재정 보고 및 씬터

##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선교회 지도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세계평화를 위하여...
- 죄인들의 회개와 불쌍한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 00의 영육간의 건강과 내적 치유를 위하여...
- 젊은이들이 성소에 많이 응답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 세실리아와 베드로의 영육간에 필요한 은총을 구합니다.
- 성모님, 제임스와 캔데스 가정을 봉헌합니다.
- 남편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을 봉헌하오니 성모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소서.
- 성모님, 신장투석중인 남편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 전쟁 위협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주소서.
- 자녀들의 굳은 믿음과 주님 사랑에 열정을 기원하며...
- 우리 부부에게 변화된 삶과 영육간에 필요한 은총을 허락주소서.
- 회개하고 고백성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00의 시력이 하루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모든 불체자들의 신분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 00이 가톨릭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주세요.
- 남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 아들이 마음의 안정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00가 부활절에 주님의 자녀로 세례 받은 것을 감사드리며...
-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과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냉담중인 아들과 딸들, 손주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저의 간 수치가 위험하게 올랐습니다. 식도, 위장, 간, 담낭 등 치유의 은사를 청합니다.
- 남편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어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 믿음을 되찾도록 기도합니다.
- 성모님, 5남매의 가정일치와 화해,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하여...
- 저희 가족 모두에게 신앙의 은총을 주시고 동생이 직업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 세상의 쾌락과 술로 고생하는 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 오빠와 이모에게 달려있는 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길 기도드리며 봉헌합니다.
-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00이가 영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 주신 삶을 살도록...
- 성모님, 주님이 새집을 마련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 
- 7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증인들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드립니다.
  - 모든 미사와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때 봉헌해드립니다.



#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기사는 1987년 7월, 잔코넬이 메주고리에에서 프란치스코회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와의 인터뷰한 내용이다. 잔코넬은 변호사이자 경제고문으로서 많은 비영리단체를 창설해서 활동했다. 9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미국내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기 초대손님이기도 하다. 2000년 11월 고인이 된 슬라브코 신부는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목격 증인들의 영적 지도신부였다. - 편집자 주-]

##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질문 :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일부가 묵시록적 사건들과 연관이 있나요?

슬라브코신부 : 우리는 묵시록적 사건을 메주고리와 연관시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차적 지향이 아닙니다. 메주고리에는 희망의 장소입니다. 성모님께서 "나는 너희를 평화로 이끌고,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그 평화를 얻고 이룩하기 위해, 단식하고 기도하라고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평화란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평화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또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화란 그 영혼과 마음의 어떤 진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영혼의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로 돕도록 도와줍니다.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사랑할 수 있고, 피로와 모든 종류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피로를, 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피로와 노력의 부족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갈등과 이혼, 그리고 전쟁은 이런 피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도 이런 영적인 피로를 없애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초대를 이해했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새로운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진정한 메시지이고 의미입니다. 묵시록적 차원의 질문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대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도 일차적으로 대재앙에 대해 말

##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평화로 초대하시는 성모님



씀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메주고리예를 일차적으로 묵시록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애쓰시시지를 정말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파티마 성모님께서서는 인류가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대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인류가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뒤따르게 될까요?

슬라브코신부 : 성모님께서서는 발현 목격 증인들에게 10가지의 비밀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10가지의 비밀에는 좋은 것과 힘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이며,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평화의 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추진력을 줍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 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질문 : 대재앙을 막을 희망이 있다는 말인지요?

슬라브코신부 : 네,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보속, 단식, 회개, 기도 그리고 화해의 길이 대재앙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인가요?

슬라브코신부 :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재앙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대재앙을 만드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 대재앙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나요?

슬라브코신부 : 대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큰 재앙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랑과 용서를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을 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차적 책임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대재앙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평화가 가져오는 긍정적 열매보다는 대재앙 자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걸보기에 평화로울 수 있어도, 당신에게 '적'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그 사람과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각자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기 바란다. 너희없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너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먼저 우리 자신이 지녀야 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 : 마약과 알코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슬라브코신부 :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또한 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일차적 목표는 마약이나 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평화이며,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그 방법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속아서 평화를 찾기 위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전쟁이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큰 거짓입니다. 전쟁이란 마음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의 상황에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판단은 논쟁을 하게 만듭니다. 마약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 대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답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질문 : 인간의 지성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가요?

슬라브코신부 : 그렇습니다.

질문 : 발현 목격 증인들이 본 천국과 지옥, 연옥에 대해 말해 주시겠습니까?

슬라브코신부 : 발현 목격 증인들에게 연옥을 보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연옥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연옥을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지옥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연옥은 빛이 전혀 없는 일종의 어두움이 있는 곳으로,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것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순진한' 증인들입니다.

질문 : 발현 목격 증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미리야나와 마리야는 하느님께서서는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슬라브코신부 :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신학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 아드님을 보내심으로써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를 신비롭게 행사하면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미국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슬라브코신부 :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떤 특정 국가의 문제에 대해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평화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평화로 초대하시면, 이 초대



는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가능합니다.

질문 : 낙태는 이미 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까?

슬라브코신부 : 성모님께서서는 평화의 모후이시며 생명의 어머니로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생명도 있어야 하며, 참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늘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곳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간접적 방법으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생명을 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낙태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특히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생명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생명의 모후이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 평화와 낙태의 문제가 이해 되실 것입니다. 매년 5~6 천만 명의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는 철저한 전쟁입니다. 평화의 모후로 오신 성모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혼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명백하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결혼 생활의 기본입니다. 모든 이혼은 우리가 진실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모든 낙태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돌아선다

## 성모님께서서는 어떤 특정국가의 문제에 대해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면, 다른 일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메주고리예를 방문한 이후 많은 가정이 화해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질문 :** 발현 목격 증인들은 성모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슬라브코신부 :** 어떤 사람이 비스카에게 성모님을 친구, 언니, 혹은 어머니 중에 뭐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비스카는 "세 가지 모두요."라고 대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머니를 택하겠어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보듬어 주고 싶어하신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어머니의 원형이시고 모든 여인의 모범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관점에서 전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갈등과 공격성은 사랑받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처한 상황은 모성애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이 결핍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정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낙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태아의 생명에 개입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그 생명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평화롭게 지낸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모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질문 :** 사탄은 한 세기 동안 그리스도 교회에 대항할 기회

를 얻었다고들 말합니다.

**슬라브코신부 :** 사탄에게 속한 한 세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모든 세기에, 사람은 사탄에게 협력하거나 저항할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협력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사탄에게 한 세기가 주어진다 해도 그는 어떤 힘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 :** 우리의 세속적 문화가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사탄의 능력을 더 강해지게 만들습니까?

**슬라브코신부 :** 글쎄요, 누가 문화를 만들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고도의 기술, 폭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도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가족 중 한 사람은 메시지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다른 가족들은 메시지에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라브코신부 :** 저는 매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가족들을 압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증거입니다. 가족 중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 해 만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비록 너무 늦게 기도하고 인내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점이 부모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제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느냐고 당신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우시며,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내심을 잃으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M**

(다음호에 계속)



#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에 관하여  
주교와 신부 및 봉헌된 이들과 평신도들에게 보내는 교황의 권고

교황 베네딕토 16세

## I. 성체성사와 그리스도교 입문



### 성체성사, 그리스도교 입문의 완성

17.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것은 성체성사를 받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교회에 합체되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세례성사는 모든 성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례 성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며(1코린 12,13), 사제다운 백성이 되게 합니다. 세례 때에 받은 선물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은 성찬의 희생제에 대한 참여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1코린 12장) 세상에서 복음을 더욱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시키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사 생활의 중심이자 목표가 됩니다.

### 입문 성사의 순서

18. 이와 관련하여 입문 성사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자들이 입교 과정 전체의 목적인 성체성사를 중심에 놓도록 하는 데에 어떤 관습이 더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교회의들은 교황청 관할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그리스도교 입문 방법의 효율성을 점검함으로써, 신자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받은 양성을 통하여 성숙해가고 그들 삶이 참된 성찬의 모습을 지닐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 안에 지닌 희망의 이유를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1베드 3,15).

### 입교와 교회 공동체와 가정

19. 그리스도교 입문 전체는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리고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회개의 과정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입문과 가정의 관계에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 사제들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세례 성사와 견진성사, 첫 영성체는 이러한 성사를 받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중요한 순간이므로,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가정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첫 영성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이날은 예수님과과의 인격적 만남의 중요성을 비록 어렵거나 처음 이해하게 된 순간으로 언제나 지나 기억에 남게 됩니다. 본당 사목은 이토록 뜻 깊은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련하여, 고해소들이 성당안에서 성사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든 죽은 이를 위해서든 균형잡힌 건전한 대사 관행은 성체성사와 고해 성사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신자들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 받습니다. 대사의 활용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잘

못을 갚을 수 없으며, 우리 각자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해롭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에 관한 교리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통공에 관한 교리에도 관련되는 대사의 관행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얼마나 가깝게 일치되어 있는지, ..... 그리고 각자의 영적 생활이 서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일깨워줍니다.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에는 고해와 영성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관행은 신자들의 회개 여정을 효과적으로 지탱해 주며 그리스도교 생활에서 성찬례의 중심성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 II.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 두 성사의 본질적인 관계

20. 주교 대의원회의 교부들은 성찬례에 대한 애정이 화해의 성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고 적절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 두 성사의 연관성을 생각할 때, 성찬례의 의미를 가르치는 참된 교리 교육에는 참회의 길을 추구하라는 촉구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1코린 11,27-29). 죄의식을 상실하면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미사 예식 안에서 개인의 죄와 하느님 자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요소들은 신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또한 성찬례와 고해성사의 관계는 죄가 결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죄는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들어간 교회의 친교에 언제나 해가 됩니다. 교부들이 말하듯이, 화해는 수고스러운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회개 여정은 또한, 성찬례로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되는 온전한 교회 친교의 회복에 이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몇 가지 사목적 관심

21. 모든 사제는 기꺼이, 헌신적으로, 또한 자질을 갖추고 고해성사를 집전하는데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

## III. 성체성사와 병자성사

22. 예수님께서서는 앓는 이들을 고쳐 주도록 제자들을 파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 10,8; 루카 9,2; 10,9), 그들을 위한 특별한 성사도 세우셨으니 바로 병자성사입니다. 성체성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이 사랑으로 변화되었는지 보여준다면, 병자성사는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봉헌에 병자들을 일치시켜 그들도 성인들의 통공의 신비 안에서 세상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두 성사의 관계는 중병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병자의 도우외에도 노자로 성체를 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안에 이루는 친교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며 부활의 힘이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

## 사제직은 사랑으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의 직무입니다

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 6,54). 아픈이들에게 보여 주는 세심한 사목적 배려는 전체 공동체에 커다란 영적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가장 작은이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마태 25,40).

### IV. 성체성사와 성품성사

#### 머리이신 그리스도로서

23. 성체성사와 성품성사의 본질적인 관계는 이층 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약의 사제직도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제이시며 희생 제물이시고 제대이시며,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 백성의 중개자이시고(히브 5,5-10), 십자가의 제대에서 당신을 내어 주시는 속죄 제물이십니다 (1요한 2,2; 4,10).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유일한 대사제이신(히브 8-9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서가 아니고는 누구도 "이는 내 몸이다." 또는 "이는 내 피의 잔이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품 직무자는 또한 분명히 "교회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칠 때, 특히 성찬의 희생 제사를 바칠 때, 온 교회의 이름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사제들은 그들의 직무에서 결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전례 행위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는 사제의 신원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

제는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을 위한 종이므로, 주님의 손에 맡겨진 순종적인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가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히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피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예식에 일치시켜 이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전례 모임을 이끄는 겸손으로 드러냅니다. 저는 성직자들이 언제나 자신들의 성찬 직무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바치는 겸손한 봉사로 여기도록 격려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였듯이, 사제직은 사랑으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의 직무입니다 (요한 10,14-15).

#### 성찬례와 사제 독신제

24. 사제 독신제는 소중한 보화로서, 동방교회에서도 독신자 가운데에서만 주교들을 선발하는 관습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이 교회들도 독신제를 받아들여려는 많은 사제들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동정의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당신 사명을 실천하셨다는 사실은 라틴 교회의 이 전통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는 확실한 준거점이 됩니다. 이 선택은 무엇보다도 혼인의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 신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태도로 기쁘고 오롯하게 실천하는 사제 독신 생활은 교회와 사회에 커다란 축복입니다.

#### 사제 부족과 성소 사목

25. 세계 주교 대의위원회는 성품성사와 성체성사의 관계에 비추어, 사제 부족을 겪고 있는 여러 교구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주교들은 봉헌생활회들과 새로운 교회 단체들의 구체적인 은사를 존중하면서 이들을 사목적 요구에 활용하여야 하고, 성직자들에게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더욱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도록 초대하여야 합니다. 주교들은 현실적으로 또, 마땅히 우려해야 할 사제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자 성소 식별을 충분히 거치지 않거나, 또는 사제 직무에 필요한 자질들이 부족한 후보자를 신학교 양성과 성품에 허용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성소 사목은 전체



##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의 잔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든 생활 영역에 다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모든 차원의 이러한 사목 활동에는 사제 성소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기도 하는 가정들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정들은 생명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녀들이 하느님의 뜻에 열려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근본적인 결정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보여줌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용감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감사와 희망

26.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에 언제나 더욱 큰 믿음과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사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든것을 버리고 거룩한 신비를 거행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양떼를 돌보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열성적으로 각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주교와 신부에게 온 교회의 감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하여" 안수를 받는 부제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총회가 권고한 대로, 저는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온 힘을 쏟으며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빵을 쪼갬으로써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리스도를 섬긴 모든 사제를 생각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훌륭한 모범은 끝까지 사제로 남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다른이들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참된 삶을 발견하도록 이끌 수 있는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M**

(다음호에는 '성체성사와 혼인성사가 연재됩니다.)

# 성지순례

## \* 유럽 성모 성지 대순례

- 2013년 10월 3일 ~ 10월20일 (17박18일)

파티마, 스페인, 아빌라, 알바데포르메스, 루르드, 이태리, 메주고리에, 슈르만치, 드브로브닉

## \*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슈르만치, 성지 순례

- 2013년 10월 7일 ~ 10월 16일 (9박10일)

## \* 로마, 란치아노, 산조반니로뚰도, 메주고리에, 슈르만치, 성지순례

- 2013년 10월 7일 ~ 10월 18일 (11박 12일)

문의 : 610-366-9613 / 917-626-4314 (cell) / E-mail: [qpmm.org@gmail.com](mailto:qpmm.org@gmail.com) / [www.qpmm.org](http://www.qpmm.org)

자세한 일정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 홈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원의 닻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1986년) 326번.

오늘은 이 어머니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구나.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는 요청을 너희가 들어주었으니 말이다. 세계 도처에서 보낸, 아주 많은 수의 응답을 받았다. 아낌없는 마음으로 계속 응답해다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 지은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올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이 시대에는 너희가 모두 반드시 피난처로, 티없는 내 성심의 피난처로 달려올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위험한 악의 무게가 너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영적 차원의 악이 너희 영혼의 초자연 생명을 해칠 수 있다. 죄가 가장 심각한 악성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어서 어디서나 수많은 영혼을 병들어 죽게하고 있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대죄 중에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고, 그런 상태로 삶을 마감하면 지옥의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지옥은 실제로 있고 또 영원한 것이건만,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병에 걸려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속에 있는 것이다. 또 물리적 차원의 악, 이를테면, 질병, 재앙, 사고, 가뭄, 지진, 불치병 같은 것이 두루 퍼지고 있다. 자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한 경고의 표징을 알아 보아야 한다. 이는 날마다 저질러지는 무수한 범죄를 징벌 없이는 묵인할 수 없으신 하느님 정의의 표징이다. 사회적 차원의 악도 있으니, 분열과 증오, 굶주림과 혈벗음, 착취와 예속, 폭력, 테러리즘, 그리고 전쟁이다. 티없는 내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로 피신하라고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 것은, 이 갖가지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시대의 너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세상에 스

스로의 왕국을 세운 내 '원수'의 가공할 짓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왕국, 곧 '거짓 그리스도'(\*1요한 2, 18, 22; 4, 3)의 왕국이니, 힘과 권세에 있어서나 그 굉장한 속임수에 있어서나 그의 이 왕국이 이 세기의 남은 기간에 전성기를 이룰 것이다. 하느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느님으로 예배를 받고자 하는 그 악한 자가, 온갖 권세를 부리며 모습을 드러낼 때가 다가온 것이다. 그 끔찍한 유희의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길을 잃지도 절망하지도 않으며 굳건히 신앙 안에 머물 수 있고, 오로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티없는 내 성심이 너희의 가장 힘있는 방어 -- 내 '원수

'의 온갖 공격에서 너희를 보호할 방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너희는 특히,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너희를 기다리는 고난의 때 -- 엄청난 배교, 하느님께 대한 인류의 거부와 반역, 불의와 불화, 증오와 파괴, 사악과 불경(不敬)이 극에 이를 그때, 너희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느냐? 티없는 내 성심 안에서라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다시, 파티마에서 내 딸 루치아 수녀에게 했던 말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풀이한다. "티 없는 내 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교회가 특별한 공경을 바치는 이날, 나는 티없는 내 성심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닻으로 나타나기 바란다.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고펀 신부님에게 1973 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 기도와 평화의 학교 메주고리에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메주고리에에서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요조신부 : 메주고리에에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고 변화이기에 3시간 동안의 전례도 마치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모님께서서 모두 함께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메주고리에에는 함께 기도할 때 더 많은 힘과 서로 한 형제자매임을 체험하게 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메주고리에에는 체험의 학교, 즉,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장소로서 신앙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루카 7, 22) 이는 사람들을 당신의 증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 분께서 빵을 쪼개실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루카 24, 32)

질문 : 자기식으로 성모님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람도 있겠지요?

요조신부 :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선물과 믿음에 의해 열매 맺은 영성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과

지식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은 신비이고 생활의 지혜로서 삶속에서 함께 나누며 덕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는 '사순시기'에 신자들에게 희생과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도록 인도합니다. 이런 묵상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주어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대화에 대한 신앙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은총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신앙과 기도를 실천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알게되면 바리사이파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지식의 교만으로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신앙이 없는 생활을 하면 하느님을 올바르게 흠숭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내 증거자들이 될 것이다." (1986.1.30, 1991.6.25)

요조신부 : 저는 사제직에 의무감을 느낍니다. 군중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주님의 손에서 다섯 개의 빵을 받으러 가는 사도들처럼요. 수 천만의 사람들이 저쪽 풀밭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지금 뭘 해야 하

## 사제직은 거룩하신 하느님과 영원한 계약입니다.

지?" 라고 생각해 보거나 해야 할 말을 미리 준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신앙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이 제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루도 못하고 쓰러졌겠지요! 지난 20여 년 동안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수 많은 순례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강연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변화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는 힘이 납니다. 당연히 육체적,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면 큰 축복을 느낍니다.

**질문 :** 순례자들이 마음을 다해 신부님의 강론을 듣는 것을 봅니다.

**요조신부 :** 정말 그래요. 저는 모성적인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단 한 번도 실망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론 할 때마다 성모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낍니다.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한 후, 순례자들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과 평화를 느낄 때 행복합니다. 그런 순례자들의 모습은 마치 신선향을 풍기는 것과 같아요. 저는 무쇠가 아니지만 늘 평화 속에 머무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온유하신지와 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 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느님은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저의 모든 것입니다. 성모님과 교회와 사제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사제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아깁니다. 사제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사제들을 통해 나를 보듬어 안으시고, 미소 지으시는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제직은 거룩하신 하느님과 영원한 계약입니다!

**질문 :** 프랑스에서는 교회건설보다 집 없는 이들과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와 빈민구제사업을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요?

**요조신부 :** 저는 이런 의견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 없는 이들에게 비를

가릴 곳을 마련해주며, 혈벳은 이들을 입히고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는 것을 상기시켜 주니까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것은 '사랑의 문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나를 따뜻이 맞아 들었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오 25, 35-36)." 교황 성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울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돈을 찍어내듯 기계적이나 건성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마태오 25, 40)."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마음을 담고 사랑으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이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상대방의 것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방과 내가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 깊이 동감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는 앞으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이런 가난한 이들에게도 해당되고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본당 신자들이나 주민들의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준 성프란치스코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이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마르코 26,11; 14, 7; 요한 12,8)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이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도와주고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와 멀리 있어서 유감이시지요?

**요조신부 :**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외국으로 일을 떠난 이민 노동자와 같은 느낌입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러나 어느 날인가는 꼭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도대체 언제

## 저는 항상 메주고리예와 함께 있습니다

올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외국으로 일을 찾아 떠난 많은 사람들은 조국과 고향마을과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외국생활에 적응하고자 애쓰겠지요. 저도 여기에 있지만 늘 모든 것을 메주고리예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메주고리에 본당 주임신부에게 하셨던 주교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약 요조 신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메주고리예에 접근한다면, 내가 처벌을 내릴 것이요!" 그래요, 저는 아직도 벌을 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옥에 갇힌 죄수처럼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한받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교님은 저에게 이런 모욕감과 굴욕을 주면서 처벌하고 싶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웬지 주교님의 행동들은 저에게 주는 이런 어려움들이 마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예민한 것인지 자문해 보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 처벌이라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처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 제 생각에는 정확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조신부 : 제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당시부터 경험했던 제 느낌들에 대해서.... 메주고리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압수당한 느낌이 들어요...

질문 : 신부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네요...

요조신부 :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면서 생활과 균형 속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지속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저를 부르신 하느님께 응답하고 싶습니다. 제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거라!" (마태오 28, 19-20; 루가 16, 5) 박해가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 즉, 복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메주고리예와 함께 있고 메주고리예도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메주고리예를 전하기 위해 교회 인준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하느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을 믿기에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신앙과 믿음의 박해는 오히려 제 사명감을 도와 주고 불태워 줍니다. 만약 제가 본당을 맡고 있었다면 여행을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수 많은 사람들과 순례자들을 위해 하루 전부를 할애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모든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박해와 고통들을 통해 제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 아주 소중한 것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은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렇다고 사명을 매장할 수는 없습니다. **M**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박창득 몬시뇰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뉴욕대교구)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벌  
 웹관리자 : 박 어거스틴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김성주, 박 소화 데레사, 최 레지나  
 인쇄 : 동방인쇄출판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Tel. 070-8125-9434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 아기예수님께 드린 9일 기도

마리노 레스트레포는 1997년 자신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온 죽음과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다. 그는 연기자와 음악가로서의 과거와 세상적인 소유를 뒤로 한 채 1999년 '사랑의 순례단' 이라는 평신도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메주고리에 및 성지순례를 시작하고 있다. 그 후 마리노는 선교 순례 중 가난한 남미 교회에서 플라스틱 성작과 재활용한 제의로 미사를 봉헌하는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부유한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성작과 제의들을 모아 가난한 나라의 교회로 보내고 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공소와 학교에 식품과 의약품들과 의료 및 교육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다. 마리노 레스트레포는 바티칸 매거진에 의해 2011년의 인물 10인에 선정되었다. 마리노는 자신의 체험담을 평화의 모후 회원들과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마리노 레스트레포



저는 콜롬비아 커피 생산지인 안데스 산 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10 형제 중 여섯 째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교육을 받았지만 10대에 가톨릭 교회를 떠났으며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

다. 대신 모든 별점, 숫자점, 동양 철학, 마술, 미스터리 과학 등의 뉴에이지 사상들을 신봉하였습니다. 그 후 19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한 후, 독일로 이주하여 배우와 뮤지컬 작곡가가 되기 위해 함부르크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았고 6년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뉴욕의 CBS 레코드사로 알려진 소니 음반사에 전속 예술가로서 '산타페'라는 밴드를 조직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작곡을 하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1997년, 그 무렵은 저의 가족에게 가장 슬프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4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 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었고 몇

달 후에 동생이 바하마에서 보트사고로 죽었으며, 곧 이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몇 달 후에는 또 다른 동생이 보고타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 아기 예수님과 9일 기도

그 해의 크리스마스에는 저는 남은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콜롬비아로 갔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제가 교회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날, 저는 아기 예수님의 9일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성당에 갔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죄와 지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대본을 쓴 제가 성당에 간 것은 오직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신부님은 강론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청하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척 흥미로워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물었습니다."이 아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가족들에게 아기 예수와 관련된 많은 기적



## 하느님께서서는 절망의 순간에 제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을 전해들으면서 나도 아기 예수님에게 청하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 후, 인도네시아 섬에서 여러 여자를 거느리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제가 신봉하는 마술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아기예수님께 드리는 이 9 일 기도는 12월 16일에 시작해서 12월 24일 자정미사로 끝이 납니다.

### 콜롬비아 반군들에게 납치되다

9일 기도가 끝난 후, 25일 크리스마스날, 저는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제가 태어난 고향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하느님과 상관없이 춤추고 술 마시고 파티하며 밤새워 노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지프차를 몰고 고향의 숙부님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날밤부터 제가 아기 예수님에게 청한대로 과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느님은 기회를 놓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숙부님의 농장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무장한 6 명의 콜롬비아 반군 게릴라들이 숲 속에서 튀어나와 저를 포위한 후, 손을 묶고 얼굴은 가린 채 정글로 납치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납치되어 끌려다니는 기간은 총 6개월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새벽, 다시 그들은 정글속 더 깊은 숲 속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동굴에 감금했습니다. 그 곳은 온갖 박쥐와 더러운 벌레들이 온몸에 달려들고 물었지만 저는 손이 묶여 있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15일을 갇혀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동굴에서 저를 끌어내어 야생뿌리와 과일 등의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전쟁 중인 그들은 비상시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했지만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그들은 저를 동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는 저에게 큰 액수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온갖 정신적인 고통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보상을 받는 즉시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저는 절망했습니다.

### 절망 속에 만난 예수님

바로 그 날밤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그 신비스러운 일은 몇백년이 걸려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체험은 8 혹은 9시간 정도 지속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시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느님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제 삶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체험을 하기 전까지 저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돈은 하느님과 같았습니다. 그런 돈과 생명을 게릴라 반군들이 요구하니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서 절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밑바닥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 보다 더 깊은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제 삶에 개입 하셨습니다. 갑자기 내 눈 앞에 세 살 배기 어린 내가 고향집 뒷마당에서 막대기로 정원의 화초들을 망가뜨리고 있었고 이를 본 가정부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7 살된 제가 갑자기 3살 때의 자신을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는지 상상이 되고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동굴 밖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게릴라들이 도망치는 줄 알고 당장 죽일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의식하에서 지난해 생애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저지른 죄들은 더욱 컸기에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잔디 밭에 엎드려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도록 완벽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자유는 몸이 게릴라들에게 풀려났다는 자유가 아니라, 지상의 삶에서 해방된 자유로움이었습니다.

###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보니 저 멀리 있는 산언덕에 믿을 수 없도록 아름답고 놀라운 빛을 발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아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그 도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마치 온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울리는 소리 같았고 동시에 제 내면의 소

## 사랑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마치 저를 태우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것을 거부하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하느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랑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앞에 설 수가 없으며 그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멈추자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렵고 끔찍한 지옥 위에 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와 학교,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비웃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지옥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것이라도 전하려고 노력 할 뿐입니다. 저는 바다 같이 넓은 곳에 아주 더러운 안개들이 두텁게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안개같이 보인 것들은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로서, 완전히 악의 형태로 변형된 인간들이었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절망 속에서 분노하며 소리치려 하여도 그들의 소리는 마치 짐승과 맹수들의 울부짖음처럼 나올 뿐이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목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죄로 인해 그렇게 변했는지와 울부짖으며 하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더 깊은 곳을 보니 죄에 따라 많은 단계에서 심판 받는 곳과 지옥을 지배하는 사탄의 무리가 보였는데 그들은 추락한 천사들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무리는 개별적인 종류의 죄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3년을 살면서 제가 지은 죄들이 어떻게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보았고 그것은 수천만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한 후,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으며, 마지막 중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

닙니다. 저의 메시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멍니다.

### 성체 성사에 대하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힌두교인, 불교인, 유대인, 모슬렘, 크리스찬에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대전에서 사랑에 대해 심판을 받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되돌려 주어야 함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가톨릭 교회는 당신의 교회이며 영혼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는 가톨릭 신자들은 성체와 보속의 도구로서 생명의 빵이 되어 온 인류를 먹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를 가톨릭 신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14때에 사탄에게 고백성사의 은총을 빼앗겨 가톨릭 신앙을 잃어버렸으며 고백 성사를 통해 겸손하고 온유한 삶으로 가톨릭 성사의 은총을 지켜야 할 기회들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고백성사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체 다음으로 큰 선물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우리가 겸손되어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자만심의 왕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지키고, 저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구했어야 할 영혼을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총은 성체입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 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느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면 평화와 화해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게됩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있는 감실이 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그 순간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있는 영혼을 구하십니다. 제가 33년간 모시지 않은 영성체 때문에 느낀 고통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죽어서 받는 가장 큰 고통은 본인이 모시지 않은 성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과 의무는 단순하게 신앙을 지키며 성체에 대한 신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느님 대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사탄은 더욱더 성스러운 교회의 전통을 없애고자 하니 교회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 성모님, 당신은 내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님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사탄을 이겨내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겸손하고 순종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 예수님, 저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연옥 상태에 있게 하셨을 때 제 허리까지 호수에 잠겨있었습니다. 호수 앞에는 매우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거대한 바위와 호수의 거리는 해와 지구 사이 간격만큼이나 매우 멀었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의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었으므로 저는 물속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 때 33년 동안 지은 죄 가운데 제가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탄의 영을 보았는데 제 영혼이 그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사탄이 나를 유혹 할 때 내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나의 삶과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저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했던 연옥 영혼과 하느님께서 성교회에 주시는 은총마저도 줄어든 것을 보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겪는 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평생 연옥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연옥영혼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선 빛 안에 있으며 이 세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지상에서 살았던 삶과 연관되어 각기 다른 단계의 연옥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전히 지상의 삶의 결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연옥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너무도 많은 영혼이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매우 놀랄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깊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식과 순수한 상태에 있으므로 연옥의 고통을 참는다는 것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연옥을 본 것은 매우 길고 깊은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때 성모님께서 오셔서 저의 죄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저의 죄를 보지 않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은 네가 지은 죄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

를 청하여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저에게 어머니로서 용기를 주시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여러번 따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 그래... 자어서 나를 따라 해보아라. 예수님, 저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과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중 성모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저의 체험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성모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어둠 안에 있었으므로 성모님이 오셨을 때 몹시 두려웠고 모든 죄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모성으로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제가 죄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심으로 주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어머니로서 여러번 반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자, 자, 어서... 어서... 나를 따라 해보아라. 주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바로 이말씀이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성모님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모님, 당신은 내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오셔서 저를 당신의 망토로 감싸주세요. 저의 부족한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님께 전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바위쪽을 바라보았으나 찬란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을 펼치시며 저를 부르고 계셨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초대하려고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네가 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 이곳에 올 수가 없구나. 나는 너에게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조건없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서로 조건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M**

(다음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세상의 그 무엇도 성모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11년 2월 18일, 아일랜드TV와 비스카의인터뷰



사회자 : 1981년 6월 24일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마을 메주 고리예에 사는 6명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마을 언덕에서 성모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 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에게 성모마리아가 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 삼 백만명 이상이 그 작은 마을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밤 6명의 목격 증인 중 한 사람인 비스카를 통역인과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비스카 : 여러분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1981년 6월 21일은 세례자 요한의 축일이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동생 센카가제 친구인 마리야와 이반카가 저를 찾고 있다며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사라예보와 모스타르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휴일이면 마을에 오곤 했었습니

다. 제가 그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 갔을때 그곳에 마리야, 이반카, 마리야의 동생 밀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몹시 겁이 나 있는 듯했으며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야생동물 같은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성모님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들이 머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떠났고 중간에 이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반에게 "이반, 저아이들이 성모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함께 가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이반과 함께 다시 그 장소로 가던중 뒤를 돌아보니 이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반은 이미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갔을때 그들은 저에게 "성모님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고 계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려다 볼 수가 없어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안의 강한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성모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날 다시 올 때 성모님이 그곳에 계시면 말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우리가 그 곳에 갔을 때 성모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성모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성모님께서 "내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기다리실 것입니다.

님을 보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오시기 전 빛이 세 번 비추면 성모님이 오시는 싸인입니다. 성모님은 발밑에 많은 구름을 타고 오시며, 회색 드레스에 하얀 베일을 쓰셨고 머리는 짙은색이고 파란 눈동자를 가지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대축일에는 황금색 드레스를 입고 오십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에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오십니다. 몇년전 성 금요일에는 성인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가시관을 쓰고 계셨는데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난을 보도록 함께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성모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번은 제가 성모님께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우시냐고 물었을 때, 성모님께서서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사랑하라고 하시며 사랑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서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내면과 영혼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게되면 겉모습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므로 자신의 내면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좀 더 자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자 : 성모님이 왜 당신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비스카 : 한번은 저희가 성모님께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여쭙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회자 : 성모님께서 주신 10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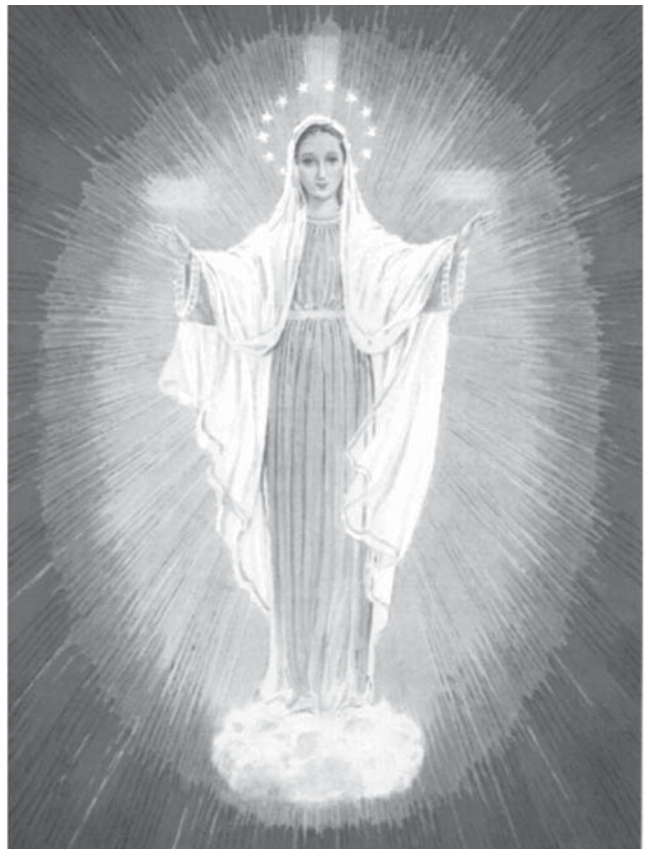
비스카 : 저는 9가지 비밀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번째 비밀인데 성모님께서서는 처음 발현하신 언덕에 가지적인 표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표징은 영원히 남을 것이고 성모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표징은 특별히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나요?

비스카 : 그 일은 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성모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자 : 비스카, 당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은총으로 생각하시나요?

비스카 : 하느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 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저의 경우에 고통은 성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총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어떻게 은총이 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분명히 큰 은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짐을 지게 될 때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나지?' 의문을 갖고 그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그러한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른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 그 고통을 계속 질 수 있는 힘을 청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또한 질병과 같은 것들이 하느님



성모님의 첫 발현때의 모습

이 보시기에는 커다란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자 : 성모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까?

비스카 : 저와 야콥이 우리 집에 있을 때 성모님께서 저희를 지옥과 연옥,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야콥이 성모님께 비스카는 여덟 형제 자매가 있으니 비스카만 데려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몇시간이 걸릴 것이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모님께서 오른손으로 저를, 왼손으로는 야콥의 손을 잡으시고 저희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저희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붕이 하늘을 향해 열렸습니다. 야콥과 저는 단 몇 초만에 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주 넓은 공간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지상에 없는 빛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뚱뚱하

거나 마르지 않고 모두 같은 체형이며 회색, 노란색, 붉은색의 세가지 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찬미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작은 천사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보아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비스카 :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믿으라고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체험을 말할 뿐이며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성모님께서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기다리실 것입니다. **M**  
(<http://www.youtube.com/watch?v=nVJYWRDN4BI> 에서)

##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미리야나 드라기체비치



지금 세상은 몹시 어두워 보이지만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메주고리에 목격증인 미리야나는 성모님의 승리에 대한 징조들을 언급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성모님께서 1917년 파티마에서 시작하신 일들이 우리의 시대에 메주고리에서 끝날 것이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티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이 아직은 명백하지 않으나, 크지않은 징조들을 통하여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목격증인 미리야나는 메주고리의 그레시밀 세고가 쓴 새로운 저서를 통해 말하고 있다.

세고가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건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리야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이곳에서 천천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작은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라면 저의 다음과 같은 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을 맞아 대청소를 하려할 때, 우선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소파, 찬장, 테이블, 의자 등 어느 것도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게 되죠. 이럴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엉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게 되면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새 것처럼 윤이나고 깨끗히 정리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정리정돈을 하려할 때 우선 모든것을 늘어놓아 엉망이 된 것처럼 해놓습니다. 저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M**  
(2011년 6월 10일 메주고리에투데이에서)

#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모님

이반 드라기체비치



메주고리에의 다른 목격 증인들에게는 성모님께서 단 한번 천국을 보여주신 것과는 달리 이반 드라기체비치에게는 1984년과 1988년 두 번의 다른 시기에 천국을 보여주셨다. 이반이 묘사한 천국은 1981년 비스카가 보았던 천국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스카는 발

현 초기인 1981년 가을, 자신의 집에서 다른 목격 증인 야곱 출로와 함께 천국에 다녀 왔었다. 사람들은 1 시간 30분 동안 그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반은 리비오 판자가 신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 하였다.

리비오 신부 : 성모님께서 목격 증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지상의 삶이 순례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체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반 : 천국은 메주고리에의 골짜기처럼 경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나이도 모두 같아 보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그 천국을 매일 매일 조금씩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M**

(www.Spirit Daily.com 에서)

# 하느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 파블로비치 루네티



메주고리에 발현 목격 증인 마리아는 5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 라디오 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교황님을 예로 들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살아가는 것보다 메시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메시지를 삶으로 실

천하도록 불리움 받은 이들입니다. 신앙의 증거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와는 반대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가 매우 강력해질 때까지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하고 단호한 결심을 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기도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 열릴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중재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2013년 5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M**

“우리 크리스찬은 말보다는 삶으로써 증거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발현 초기부터 "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여러 번 단식에 대해 말하면서도 단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실천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삶으로 보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으로 간 많은 사제들과 사람들의 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00% 삶으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과 겸손과 사랑, 신앙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기 위해 기록해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은 우리에게 멸망의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32년간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는 증인이지만 왜 하느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한다. "우리는 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혹한 고통과 시련, 굶주림, 가난과 그 밖의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왜 하느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저희 목격증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께 온전히 믿고 의탁하는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 아오스팅 말씀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medjugorjetoday.tv>에서)

##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안식이 없는 이 시기에  
 나는 너희가 다시 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발을 내딛으라고 부른다.  
 나는 너희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어려움을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너희는 내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며,  
 그분 안에서 평화와 구원을 찾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아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다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느님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이시니  
 너희도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용서하여라.  
 단식하고 기도하여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정화되고,  
 천상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될 때,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분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어머니로서 나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라. 그와 하나가 되어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라. 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를 섬기라고 부른  
 목자들을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여라. 고맙다."

\*성모님께서 단호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2013년 6월 2일 성모님의 메시지

발현 목격증인 미리아나



# 성모님, 나의 어머니 ...



"은 세상 곳곳에서 어머니여, 자녀들이 어려운일 가슴에 안고 먼 길 떠나왔나이다. 굽어보시어 위로와 사랑의 손 얹어 주사, 나를 위해 우리 주께 평화의 모후 빌으소서."

성모 어머니, 모두 함께 어머니 품이 그리워 달려온 자녀들임을 고백하며 떨리는 가슴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그려 온 곳이었는지요?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미사를 드리기 위해 야고보 성당으로 향하는 발길은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 곳곳에서 달려온 당신의 자녀들로 성당은 이미 만원이었고 제대 위에선 그렇듯 곳곳에서 오신 사제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신비였고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일로 바위같이 무거운 가슴을 안고 당신께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기에 어머니, 당신만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당신의 치마폭에 싸여 맘껏 울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그런 저를 당신은 불러주셨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당신께로 갔습니다. 눈이 부시게 고운 하늘 아래 엄마가 오셨다는 발현산을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렇게도 오고 싶어하던 동생 베르타를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 제 고통을 봉헌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살갓에 와 닿는 뽀족한 바위 산의 통증을 느끼며 내가 살아야 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야, 나 늘 성모님께 기도해. '우리 언니랑 메주고리예로 불러주세요.'하고. 언니야, 우리 손 꼭 잡고 함께 가자." 하던 내 동생 베르타 ...

18개월 전 그 아이는 이날을 기다리다 못해 먼저 성모

어머니, 당신께로 가버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실은 그 아이를 데리고 메주고리예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좋다는 전화를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을 다녀와야지 하면서 4개월간의 휴가를 얻어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미국에서 서울,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막 지어진 암센터라 멀기는 했지만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5층 병실로 종종거리며 올라간 제게 베르타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언니야, 울기 없기야!" 먼저 선수를 치며 장난을 걸어오는 내 동생 베르타... "세상에 ... 베르타 ... !" 어머니, 전 그 아이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메주고리예를 가고 싶어하던 아이였는지요. 얼마나 어머니, 당신을 그리워한 아이였는지요... 성모님, 당신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시다는 걸 알지만,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어하던 저희였기에 어머니 ...

그날부터 전 베르타와 매일 매일 추억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뼘 한뼘 수를 놓듯 시간 속을 걸으며 우리는 추억을 만들었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병원 로비를 성모 어머니가 함께 걸어주실 줄을 믿으며 묵주를 손에 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묵주를 잡을 힘도 없는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묵주를 꼬옥 힘주어 잡고 성모 엄마를 불렀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동생을 휠체어에 태워 돌이는 밤을 새우며 병원 로비를 돌고 돌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짧아질수록 우린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통증이 오면 물핀을 맞아가며 꺾어진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내 동생을 보며 소리없이 울면서 어머니 당신을 불렀습니다. 저는 베르타를 위해 당신을 부르고, 그 아이는 이 언니와 엄마없이 남겨질 두 아이를 위해 어머니 당신을 불렀습니다. "언니는 바보라서 천국문을 찾을 줄 모르테니까 내가 먼저 가서 언니 기다리고 있을게"하며 해맑게 웃던 내 동생... 그 엄청난 통증 속에서 의식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면서도 "예수님 사랑 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천진한 아이되어 해맑은 미소로 노래하던 동생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하며 끝까지 미소를 잃지않던 베르타... 단풍잎들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던 10월 어느 날 베르타는 그 모든 통증을 뒤로 하고, 그 많은 사랑을 남겨두고 조용히 당신 곁으로 떠났습니다.

### 어머니, 베르타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고운 손길로 베르타를 안아주소서. 우리 주님께 베르타를 향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려주소서! 이제야 이렇듯 혼자서 어머니께 왔음을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동생 베르타를 떠나 보내며 전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도 이보다 더 힘들진 않을 것이라고 그 어떤 힘든 일도 참아 이겨낼 수 있을거라고... 하지만 어머니, 또 다시 이렇듯 가슴에 큰 바위 같은 통증하나 끌어안으며 당신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베르타를 데리고 가지 못했던 그곳 메주고리예를 제가 아프다고 달려 갔습니다. 아마도 베르타가 당신께 몹시도 즐겼을 것입니다. 언니가 힘들어 있으니 제발이지 울 언니 메주고리예로 불러 달라고... 어머니, 당신께서 언니를 꼭 안아 주시라고. 베르타는 그렇듯 자신보다 늘 이 언니가 우선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또 다시 아프게 해서 너무나 죄송했지만 전 어머니 당신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베르타의 몹까지 당신께 바랐습니다. 밤을 새우며 그 아이에게 털어놓을 이야기들을 어머니께 쏟아내며 불렀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 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기에... 어머니, 오직 주님께 모든 일을 의탁하며 당신이 오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베르타에 대한 아픔과는 또 다른 아픔으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해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당신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둔한 세계 당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조금은 허탈한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이제야 당신의 현존하심을, 늘 항상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저와 함께 머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를 가지고 기다려 주셨음을, 늘 손잡아 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너무 제 속에 갇혀 있어서 당신의 목소리 알아듣지 못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어느 형님 자매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더욱 어머니를 느낄 수도 있다고... 네, 어머니! 전 이제야 온전히 당신을 뵈게 되었고 당신의 사랑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외로워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으렵니다. 당신 함께 해 주심을 알기에, 악도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기에 이제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렵니다. 베르타의 못다한 사랑을 나누어 가지며 제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렵니다.

오늘도 저희를 당신의 아드님,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며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많은 분들과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조금씩 아득해져 가는 그곳 메주고리예를 그리워하며 또 다시 당신을 뵈러 가리란 소망 하나를 기도장에 더 얹어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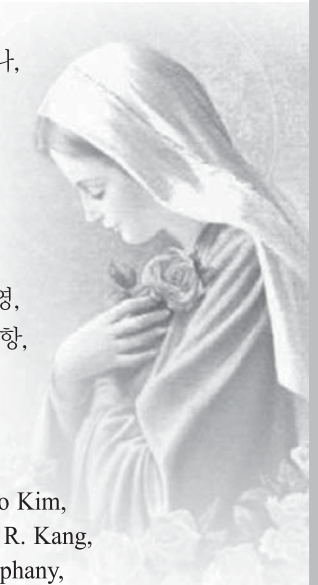
어머니, 당신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한 제 사랑을 고백하며 당신의 딸 헬레나 드립니다. M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김건일, 김경순, 김경옥, 김글라라, 김금성, 김마데라, 김미형, 김사비나, 김성자, 김안나, 김영자, 김요한, 김원희, 김윤래, 김정자, 김정혜, 김창금, 김혜숙, 김호영, 김희경, 명제혁, 민정숙, 민헤레나, 박경희, 박마르타, 박문수, 박상순, 박성수, 박안나, 박영화, 박정의, 박진이, 박프란체스카, 박프란치스코, 박혜선, 박혜영, 배정희, 백명숙, 백안셀 모, 백은화, 상희재, 서기정, 서남숙, 서장남, 서효심, 성혜경, 송정순, 신태남, 신현철, 심세실리아, 안은순, 양은희, 오세은, 유미영, 윤재용, 유제인, 이경, 이경열, 이경숙, 이경자, 이다영, 이마리아, 이미영, 이바오로, 이사비나, 이영숙, 이영옥, 이옥영, 이윤영, 이은비, 이지연, 이홍섭, 임완채, 장테레사, 장한순, 잔슨 윤숙, 전아네스, 전현숙, 정재향, 정혁, 정화순, 조양희, 주숙은, 지경수, 지니김, 지영식, 진도미니카, 진스텔라, 진정열, 채인숙, 최미카엘라, 최혜경, 최희순, 한기순, 한세실리아, 한모니카, 한옥림, 한정에, 황갑이, 황계자, 홍경애, 홍옥선, 홍익하, 익명, 71차 순례단 일동,

Annie Felix, Anna H. Cho, Chung Soon Lee, Eileen Cho, Gerald Kim, Henry Yerger, Joo Kim, Kim Inshil, Kwangsun Edmonston, Kumi Min, Lisa Rigoni, Liane Shim, Lee Paul, Mee R. Kang, Moonpak Huisuk, Mary Lee, Oksun Karosas, Ok Soon Nguyen, Sang Goode, Sandy Stephany, Sun Hui Kamb, Tak U. Lee,

**66호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 오묘하신 어머니, 제가 그분을 사랑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당신 안에 있는 불타는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저의 하느님과 당신의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순결하게 하소서.  
 제가 영혼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분을 흠승하도록 제 영혼을 순결하게 하소서.  
 제 몸이 그분을 위해 살아 있는 감실이 되도록 저를 순결하게 하소서.  
 모든 것들은 성모님께 되돌아 가고 모든 은총은 성모님을 통해옵니다."

-오상의 성 비오 신부-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가족과 친지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성모님의 메시지와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곳에 왔다.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19-2 백상프라자 109호

캐나다

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PRSR1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5

[www.qpmm.org](http://www.qpmm.org)